

1 금호아시아나 그룹 정상화 연말이 고비

금호산업 지분 확보·금호고속 인수, 자금 관건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예정대로 졸업했 가시화

향토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올 연말 그룹 재건을 위한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다.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의 지분 확보와 그룹 모태기업인 금호고속 인수,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은 박삼구 회장이 키를 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핵심 현안사업들이다.

◇금호산업 지분 확보가 최우선=금호산업은 그룹 계열사지만 최대 주주는 채권단이다. 금융기관들은 현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금호산업의 지분 57.6%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채권단은 이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주식 매각을 위해 올 연말 졸업 예정이던 워크아웃도 2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종료 뒤엔 시장에서 금호산업 지분을 공개매수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박 회장에겐 우선적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열사다.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1%를 보유하고 있어, 금호산업을 손에 넣으면 아시아나항공 경영권까지 자연스럽게 거머쥐게 된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타이어 지분

100%를 소유중이다. 현재 그룹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한 금호고속 인수 주체가 바로 금호타이어로, 금호고속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결국 박 회장에겐 금호산업의 경영권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문제는 자금 확보다. 채권단은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다. 박 회장에겐 우선매수권이 있어 입찰자가 써낸 최고가와 같은 가격에 금호산업 주식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금호산업의 주식 가격이 어느 선에서 형성될지 업계도 예측을 못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영업이익 588억원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순이익 200억원을 거둬들이는 등 경영상황이 확연히 나아졌다. 경쟁이 심해지고, 가격이 높아질수록 박 회장의 지분 확보량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나오는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컨소시엄 형태 지분 인수도 가

■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

산업	금호산업(워크아웃 중)·금호타이어(*)
운송	금호고속·금호터미널(금호터미널이 금호고속 인수 추진 중)
항공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D.T·에어부산·아시아나에어포트·아시아나에바카스·아시아나개발
레저·문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아시아나 인재개발원·죽호학원·금호리조트

능한 얘기다.

◇금호고속 인수·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전망=그룹의 모태기업인 금호고속 인수는 박 회장의 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줄기다. 매년 300억원 대의 순이익을 내는 금호고속 인수에 성공하면 그룹의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금호고속 인수전은 소강상태다. 애초 인수희망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의 사모펀드 5곳 가운데 3곳은 손을 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곳은 H&Q아시아 퍼시픽코리아와 이큐파트너스 2곳인데, 아직 예비 실사 및 가격 제시도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다. 금호고속 임직원 단체인 '구사회'의 설명이다.

여러 사모펀드가 빠지면서 우선 매수권을 가진 금호타이어가 금호고속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내년 2월 우선 매수권 행사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매각사가 시점을 내년 2월로 연기할 가능

성도 꿈틀대고 있다.

연말 워크아웃 졸업을 앞둔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의 실사가 진행중이다. 이르면 11월 초 실사가 끝나고 채권단의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업계는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수 곳의 신용평가기관에서 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조정 받은데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 1986억원을 거둬 들이는 등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이 확연히 향상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을 위해서는 박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찾고, 금호타이어가 금호고속을 인수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여기에 금호타이어가 예정대로 워크아웃에서 벗어난다면 그룹 재건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61.17 (+35.49)
- ▼ 금리 2.21%(-0.01)
- ▼ 코스닥 561.03 (-1.26)
- ▼ 환율 1047.30원 (-2.40)

LH, 광주 효천2지구 아파트 521가구 분양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 남구 노대동 광주 효천 2지구에 LH 천년 나무5단지 공공분양아파트 521가구를 30일부터 공급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2~21층 7개동으로 이뤄졌으며 전용면적 74㎡ 279가구, 84㎡ 242가구 등 총 521가구로 구성됐다. 남향 위주의 동 배치와 3베이(방-거실-방), 4베이(방-거실-방-방)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공간활용도 높여낸 것이 특징이다. 분양가격은 중간층 기준으로 74㎡형이 2억400만원 대, 84㎡형이 2억3100만~2억3300만원 대, 3.3㎡당 686만~692만원에 가격

대가 형성됐다. 청약지역은 공고일 기준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3순위로 대상으로 11월4~6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받는다. 견본주택은 남구 노대동 877번지에 있으며 30일 개관한다. 문의(1600-1004, 062-653-8200).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나주시주택조합, 남평 stx kan 중우하나린 246가구 분양

나주시지역주택조합이 31일 남평 강변신도시 stx kan 중우하나린을 일반분양한다.



총 700가구 가운데 1차 454가구를 분양완료한 조합은 2차 24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남평 강변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데다, 혁신도시와 광주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나주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남평 강변신도시를 나주시가 2008년 사업을 받은 뒤 2011년 착공, 현재 공정을 98%에 이르러 올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동주택부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으로 구성된 도시계획기능을 갖는다. 문의(1899-6288). /임동률기자exian@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년 연임

김재수(5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1년간 연임한다고 aT가 29일 밝혔다. aT 사장의 연임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명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김 사장은 지난 1977년 행정고시(21회)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정책과장·농산물유통국장·주미대사관 농무관·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이후 농촌진흥청장과 농식품부 1차관

등을 지냈다. 김 사장은 "중요한 시기에 다시 중책을 맡게돼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3년간 aT 사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상인연합회 조직 안정화 지원 필요”

한정화 중기청장 광주 간담회서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 쏟아져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해서는 상인 자체조직이 안정돼야 합니다.”

29일 광주·전남중소기업청에서 열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주관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에서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장 발전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한 청장이 28일 밝힌 전국 375개 특성화 시장 육성방안과 관련, 시행 전 상인들의 아이디어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전남상인연합회에 가입한 시장이 116개 시장 중 52개에 불과하다”며 “상인연합회의 역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선 조직 안정화를 바탕으로 한 직접 수행 사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동욱 순천 웃장 상인회 회장은 “국밥 축제시 가격을 1000원으로 인하하면 평

소보다 3~4배의 고객이 방문하는데, 이런 시장의 매력을 확대하려면 고객 지원이 가능한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유성 정남진장흥도요시장 사무국장은 “전통시장 사관학교 등 중장기적 사업주체 양성이 필요하다”며 “기관을 통해 육성된 전문인력이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시장 매니저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인건비가 적어 전문인력 유입이 어려운 편”이라며 “전통시장사관학교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인회 유지를 위해 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비로 매칭하는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삼성 기어 서클’ 출시

신제품은 강력한 휴대성과 편리한 사용성이 장점이다.

삼성전자가 29일 직관적인 사용성의 목걸이형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 서클(Gear Circle)’을 출시했다. <삼성전자 제공>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자산건전성 8년 연속 1등급 달성!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최저 연 3.5%~

햇살론 대출 **최고 2천만원** **신용대출** **최고 1억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 **최고 80%**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남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남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남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남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남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남	대기업 간부 36-59세
남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남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남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남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남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남	VIP 희망 여성 29-53세
남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남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남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남	공무원, 교사 32-58세
남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남	간호사, 회사원 29-48세
남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부 27-36세	남	자영업, 가사 35-64세
			남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상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 이마트 앞